

반토막 난 친환경 농지...광주만 늘었다

농작물 인증 면적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만 63.7% 증가 전남 2010년 9만8112ha서 지난해 4만6460ha로 52.7% 감소 전국 평균 58% ↓ ...울산 92.2%·대구 90.6% 등 높은 감소세

최근 10년 동안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이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는 유일하게 증가하고 전남은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담겼다. 지난해 기준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은 광주 560ha·전남 4만6460ha 등 전국 8만 1717ha로 집계됐다. 전남 친환경 인증면적은 전국 면적의 절반 이상(56.9%)을 차지하며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2010년 9만8112ha에 이어 8만7835ha(2011년)

→8만1896ha(2012년)→7만163ha(2013년)→4만2089ha(2014년)→3만 7296ha(2015년)→3만9941ha(2016년)→4만2346ha(2017년)→4만3256ha(2018년)→4만6460ha(2019년) 등 오르락내리락하며 10년 동안 52.7%(-5만 1652ha) 감소했다.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지가 반토막 났다는 뜻으로, 전국에서는 11번째로 큰 감소 폭을 나타냈다. 최근 10년 새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은 19만4006ha에서 8만1717ha으로 58%나 줄었다. 시·도별 감소 추이를 보면 울산이 92.2% 급감하며 감소 폭이 가장 컸고 대

구(-90.6%), 부산(-86.6%), 대전·경북(각 -83.3%), 강원(-75.8%), 충남(-66.5%), 경남(-58.8%), 전북(-53.6%), 전남(-52.7%), 인천(-49.6%), 충북(-45%), 서울(-35.9%), 경기(-29%), 제주(-11.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광주지역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은 2010년 342ha에서 지난해 560ha로 10년 새 63.7% 늘며 유일한 증가세를 보였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인증 농가 수도 2010년 18만3918농가에서 5만8055농가로 68.4%나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울산이 769농가에서 71농가로 90.8% 감소하며 가장 높은 감소율을 기록했다. 이어 경북(-84%), 대구(-83.1%), 부산(-82.3%), 전남·인천(각 -71.9%), 대전(-70.1%), 세종(-68.8%), 경남(-67.3%), 전북(-63.2%), 강원(-61.7%), 충남(-

55.1%), 충북(-47.6%), 경기(-30.4%), 서울(-25.5%) 순이었다. 광주 인증 농가는 485농가에서 418농가로 67농가(-13.8%) 줄며 제주(-10.4%)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감소율을 나타냈다. 전남 인증농가는 2010년 9만7460농가에서 지난해 2만7354농가로, 무려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과 생산농가가 전반적으로 줄며 주요 품목별 친환경 농산물 출하량도 221만에서 49만으로 무려 77.7%나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친환경 농업이 절반이상 감소했음에도 농약이나 화학비료 등을 사용하면서 버젓이 친환경 농산물 상표를 달고 시중에 유통되다 적발돼 인증이 취소된 농가는 10년 동안 4만690농가였으며, 이는 전체 인증 농가수 대비 비율이 2010년 1.5%에서 2019년 4.2%로 2.7배나 증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국민 수산물' 오징어 5년새 가격 2배로 경증

한국인이 좋아하는 수산물로 꼽히는 오징어의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최근 5년간 가격은 2배 가까이 뛴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의 '계간 수산물가격 리뷰' 6월호에 따르면 2014년 연평균 1kg당 6983원이던 오징어 소매가격은 지난해 1만2803원으로 1.8배로 상승했다. 오징어 가격은 지난달 29일 물오징어(1kg) 기준으로 서울에서 1만3300원에 거래돼 지난해 같은 기간(1만2000원)보다 10.8% 올랐다. 평년(9520원) 가격보다는 39.7% 높게 형성됐다. /연합뉴스



"드론 시 방역 부탁해"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석기·가운데)와 영암축협 등은 최근 영암군 삼호읍 망산리 영암호 철새 도래지를 찾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을 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올해 공공비축 포대벼 매입 검사 12일부터 시작

광주·전남 13만3500t 전체 물량의 27.5% 차지

공공비축을 위해 올해 재배한 포대벼를 매입하기 위한 검사를 오는 12일부터 시작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12일부터 12월31일까지 2020년산 공공비축 포대벼 매입 검사를 전국 400개 검사장에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공공비축 벼는 포대벼와 건조되지 않은 채 수확한 상태 그대로 매입하는 산물벼로 나뉜다. 올해 배정된 공공비축 벼 매입

량은 총 48만4000t으로, 건조 일반벼 34만, 산물벼 13만9000t, 친환경 6900t 등으로 구성됐다. 광주·전남지역 총 매입 물량은 13만 3500t으로, 전체의 27.5%를 차지한다. 포대벼 배정 물량은 광주 2977t, 전남 9만 7127t이다. 전남지역 친환경벼 물량은 2874t으로 전국의 41.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광주 친환경벼는 240t 매입될 예정이다.

산물벼는 각 지역의 미국종합처리장과 건조·저장시설 344개소에서 지난 달 14일부터 검사에 들어갔다. 포대벼 매입 검사를 받으려는 농업인은 시·군에서 매입 대상으로 사전 예시한 2가지 품종 중 눈에서 생산된 2020년산 매벼를 수분율 13.0~15.0%로 건조해 40kg(소형)과 800kg(대형) 단위의 규격 포장체에 담아 출하해야 한다. 시·군에서 약정하지 않은 품종을 출하한 농가는 5년간 공공비축 벼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매입 가격은 2020년 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40kg 조곡으로 환산한 가격이다. 수매 직후 포대(40kg)당 3만원의 중간 정산금을 먼저 주고 차액은 매입 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한다. 검사는 농업인의 편의를 높이고 코로나 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마을별·농가별 시차제로 진행한다. 농관원 측은 농촌인력 감소와 고령화 등 농업 여건 변화에 따라 대형 포대벼(800kg) 매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대형 포대벼 매입 비율은 지난 2016년 68%→2017년 78%→2018년 83%→지난해 88%로 확대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NH농협생명 전남총국, 연도대상 최다 수상자 배출



송대범 NH농협생명 전남총국장과 김석기 농협 전남본부장이 4년 연속 '농협생명 연도대상' 대상을 수상한 완도농협에 상을 전달하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완도농협 4년 연속 대상 개인 부문은 38명 수상

NH농협생명 전남총국이 '2019년 농협생명 연도대상' 전국 최다 수상자를 배출했다고 4일 밝혔다. 전남지역 농·축협 가운데 '농협생명 연도대상' 수상자에는 사무소 부문 15개소와 개인 부문 38명이 선정됐다. 전남총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상식을 열지 않고 사무소를 개별 방문하며 상을 전달했다. 농협생명 연도대상은 전국 사무소 부문 25개 그룹 중 1~2위, 개인 부문 전국 순위 183명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전남지역 사무소 부문에서는 전체의 30%에 달하는 15개소와 개인 부문 38명(20.8%)이 이름을 올렸다. 사무소 부문 그룹 1위 수상자는 4년 연속 대상을 거머쥔 완도농협(조합장 김미남)과 3연패 소안농협(조합장 박근남)과

순천농협(조합장 강성제) 외 6개 농협이 있다. 2위 우수상에는 진도농협(조합장 노준성), 해남농협(조합장 장승영)의 4개 농협이 선정됐다. 개인 부문에서는 ▲금상(3명) 선진농협 고군지점 류경미 과장 외 2명 ▲은상(3명) 땅끝농협 박미리 상무 외 2명 ▲동상(8명) 벌교농협 박현아 차장 외 7명 ▲우수상(4명) 목포무안신안축협 목포지점 김미주 지점장 외 3명 ▲신인상(6명) 현산농협 월송지점 김선아 과장 외 5명 ▲사랑상(14명) 신안농협 김미라 과장 외 13명이 상을 받았다. 송대범 농협생명 전남총국장은 "날로 예대마진이 축소되는 어려운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전남 농협들은 비이자 수익 증대를 통한 건전결산을 위해 생명보험 수주 확대전략 등을 펼치고 있다"며 "이러한 전남 농협들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전남 원산지 둔갑 수입수산물 25건

광주 8건·전남 17건

올해 들어 광주·전남지역에서 수입수산물 원산지를 둔갑해 적발된 사례가 25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지역에서 적발된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광주 8건·전남 17건 등 25건으로 집계됐다. 17개 시·도별 적발 건수를 보면 경기(42건)가 전체의 19.8%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22건), 경남(18건), 전남·대구(각 17건), 제주·충남(각 12건), 부산·인천(각 11건), 강원·경북(각 9건), 광주·전북(각 8건), 충북(6건), 대전(5건), 세종(4건), 울산(1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위반 현황을 유형별로 보면 광주지역에서는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이 각각 4건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에서는 거짓표시 9건, 미표시·표시방법 위반 8건이 발생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지역에서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사례는 광주 16건(거짓 9건·미표시 7건), 전남 40건(거짓·미표시 24건)으로 총 56건에 달했다. 원산지 거짓표시 국가별 적발순위를 보면 1위 중국산, 2위 일본산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일본산 수산물은 지난해 47건으로 전체 25%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증가했다. 품목별로 보면 지난해 가장 많이 적발된 원산지둔갑 품목은 활낙지와 활우렁쉥이가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낙지 33건, 활가리비 26건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하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